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지인(至人)의 삶에 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인은 무궁한 도(道)를 체득하여 고요한 경지에서 노닐며 [逍遙遊],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온전하게 하고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지인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고, 명예에 얹매이지 않으며, 지식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마음을 텅 비울 때를 떠롭입니다.

- ① 도를 체득하기 위해 예법(禮法)을 실천해야 한다.
- ② 만물의 무상(無常)함을 깨달아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 ③ 마음을 깨끗이 비워[心齋]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④ 시비(是非)를 분별하여 집착에서 벗어난 삶을 영위해야 한다.
- ⑤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살기 위해 인의(仁義)의 덕을 쌓아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별이 여왕별을 호위하는 것을 두고 충(忠)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여왕별을 호위하는 것이 별의 정해진 속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별과 달리 하늘[天]로부터 주체적인 권능 [自主之權]을 부여받아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수치로 여기므로 성을 거스르고 악을 행한다면 그 죄를 면할 수 없다.

- ① 하늘은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다.
- ②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려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 ③ 인간은 동물과 달리 형구(形軀)의 기호(嗜好)를 지닌다.
- ④ 인간의 본성은 마음의 기호가 아닌 이법(理法)적 실체이다.
- ⑤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도덕적 선악은 이성을 통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구별되므로, 우리는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 서만 덕과 악덕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 ①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는 감정이 아닌 이성이다.
- ②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이성은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 ③ 도덕적 선악은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통해 확정된다.
- ④ 도덕적 감정은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므로 보편적일 수 없다.
- ⑤ 도덕적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쾌락 증진과 무관하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 지성적 덕은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을 포함하며,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에 두고 있어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되며, 이것들 안에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올곧게 성공한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 보기 >

- ㄱ. 품성적 덕은 중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형성된다.
- ㄴ. 도둑질은 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중용의 상태가 있다.
- ㄷ. 실천적 지혜는 어떤 행동이 중용의 상태인지를 알려 준다.
- ㄹ.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중용에 따른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5.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공산 사회에서 노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된다. 이 사회에서는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향상되고 집단적 부도 풍요로워진다.

을: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물품이 풍부하여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소유물이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는 일이 없다.

- ① 갑: 생산 수단이 공유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진다.
- ② 갑: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따르는 노동 분업이 장려된다.
- ③ 을: 여가 활동을 금지하여 시민의 도덕적 타락을 방지한다.
- ④ 을: 재화가 풍족하여 어느 누구도 노동에 종사할 필요가 없다.
- ⑤ 갑과 을: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받는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은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중생은 마음이 미혹되어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으므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본래 성품을 인식하여 단박에 깨달으면 [頓悟] 곧장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 ① 갑: 경전 공부에 의존해야 본래의 성품을 직관할 수 있다.
- ② 갑: 불성이 없는 사람은 수행을 통해 불성을 형성할 수 있다.
- ③ 을: 습기가 쌓여 있어도 자신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 ④ 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지혜[慧]를 떠나 선정[定]을 닦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모든 중생은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으면 더 이상의 수행이 불필요하다.

비록 중생이 자신의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랜 습기(習氣)를 갑자기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고 점차 익혀야 [漸修] 합니다.



7.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서학(西學)은 나의 도(道)와 같은 것 같으나, 다름 있다. 서학은 진정 한율님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나의 도는 동방인 우리나라의 오랜 사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서(西)로써 이름 삼아 부를 수 없다.</p> <p>을: 서양의 족속은 금수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이다. 왜인(倭人) 또한 서양 대포를 사용하며 서양 배를 탔으니 서양과 왜는 이미 한 몸이다. 이들과 강화(講和)가 이루어지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게 될 것이다.</p>
(나)	<p><법례> →: 비판의 방향 A, B: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보기〉

- ㄱ. A: 서양 종교의 확산을 철저하게 막아야 함을 간과한다.
- ㄴ. A: 한율님의 덕을 밝히며 후천 개벽을 준비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ㄷ. B: 유교적 가치가 국난의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ㄹ. B: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지켜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떤 것이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을: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서 가장 큰 무지는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인간은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

- ① 갑: 감각이 아닌 이성이 진리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다.
- ② 갑: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야 한다.
- ③ 을: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
- ④ 을: 선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악을 행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

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자유는 노예 상태와 반대로 규정된다. 자유의 조건은 노예와는 달리 타인의 자의적 권리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이 없어도 노예화와 지배는 있을 수 있다.

을: 타인에 대한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 사슬로부터의 자유 등이 자유의 근본적 의미이다. 개인은 타인에게 전혀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적인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 자의적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자유의 부재를 의미한다.
- ② 갑: 진정한 자유의 핵심은 지배의 부재가 아닌 간섭의 부재이다.
- ③ 을: 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보다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성이 크다.
- ④ 을: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개인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⑤ 갑과 을: 법에 의한 간섭은 부당한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

1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도덕은 약국의 처방전이나 요리책의 요리 방법처럼 적용해야 할 일련의 규칙이 아니다. 도덕적 삶이란 완고한 형식주의나 고집스런 반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을: 칼은 제작자의 구상에 따라 이미 본질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칼과 달리 보편 개념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 ① 갑: 도덕은 절대적 규칙으로서 고정된 목적을 지닌다.
- ② 갑: 개선의 과정보다 정적인 성과나 결과가 중요하다.
- ③ 을: 인간은 신에 의해 정해진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을: 주체적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살아간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3

[11 ~ 12]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자연 상태에서는 각 개인의 재산 향유가 불확실하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
을: 자연 상태에서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계약은 정치체에 시민을 지배할 절대적 권력을 부여한다. 일반 의지에 의해 지휘되는 이 권한을 우리는 주권이라 부른다.

11.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사회 계약 이후에 발생한다.
- ② 갑: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울 권리(自由權)를 부여받는다.
- ③ 을: 주권은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 ④ 을: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국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소유물을 보존하는 데 있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 상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서로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사람이 국가의 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이유는 자기 보존과 그것에 따른 만족한 생활에 대한 전망이나 예상에 기인한다.

<보기>

- ㄱ. 정치적 의무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로부터 발생함을 간과한다.
- ㄴ. 시민이 군주에게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 ㄷ.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대도(大道)가 없어지니 인의(仁義)가 생겨났으며 지혜를 내세우니 큰 거짓이 생겨났다. 인의를 버리면 백성들은 효도하고 자애하게 되며, 지혜와 권위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은 백배로 늘어난다.
을: 사람들은 누구나 부귀(富貴)를 바라지만 도(道)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면 부귀를 누려서는 안 된다. 군자는 밥 먹는 동안에도 인(仁)을 어겨서는 안 되니, 위급하거나 어려운 순간이라도 인을 따라야 한다.

- ① 갑: 지혜를 끊고 타고난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
- ② 갑: 인의에서 벗어나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을: 군자는 인보다 자신의 이익[利]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을: 친소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兼愛]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도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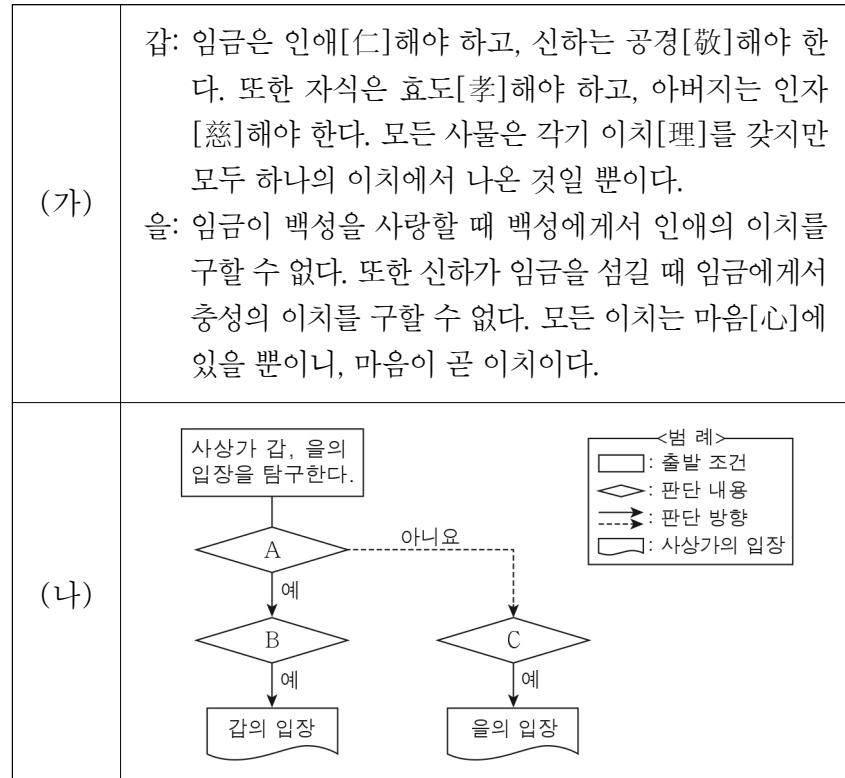
- 자연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적인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지복(至福)을 누릴 수 있다.

<보기>

- ㄱ.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닌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하는가?
- ㄴ. 자기 보존의 욕망을 제거하여 신적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가?
- ㄷ. 자유 의지를 온전히 발휘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 ㄹ. 이성의 인도에 따른 삶을 통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5.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A: 인애를 아는 것이 인애를 실천하는 것보다 중요한가?
- ㄴ. A: 각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삶을 지극히 해야 하는가?
- ㄷ. B: 백성은 임금과 달리 천리(天理)의 보존이 불가능한가?
- ㄹ. C: 임금과 백성은 모두 양지를 발휘[致良知]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성(性)을 말할 수 있듯이,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 정(情)을 말할 수 있다. 사단은 이가 발(發)할 때 기가 이를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할 때 이가 기를 타는 것이다.
을: 이와 기가 서로 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이 먼저 움직여서 물이 따라 움직이거나, 물이 먼저 움직여서 그릇이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사단도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다.

- ① 갑: 사단은 이의 발현으로 드러난 순선한 정이다.
- ② 갑: 모든 사람은 타고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 ③ 을: 칠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를 때 드러난 정이다.
- ④ 을: 유형(有形)의 이는 통하고 무형(無形)의 기는 국한된다.
- ⑤ 갑과 을: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17.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지상의 국가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의해 형성되고, 천상의 국가는 자신을 멸시하고 신을 사랑할 때 형성된다. 우리는 신의 은총으로 지상의 국가에서 벗어나 천상의 국가로 갈 수 있다.
을: 좋은[善]의 이데아는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의 원인이다. 통치자는 영혼의 눈으로 모든 것에 빛을 주는 좋은의 이데아를 보아야 한다. 국가의 통치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보기〉
ㄱ. 갑: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실현된다.
ㄴ. 을: 좋은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ㄷ. 을: 철학과 정치권력이 결합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참된 세계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파악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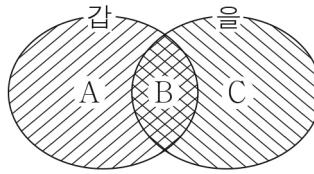
갑: 사람은 본래 소인으로 태어나서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禮)에 의한 인도가 있어야 한다. 예는 몸을 바르게 간직하는 근거가 되고, 스승은 예를 바르게 지키는 근거가 된다.
을: 사람들은 기르던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찾으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으려 들지 않는다.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求放心]일 뿐이다. 마음을 극진히 하면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① 갑: 사람은 하늘이 정한 예를 따라야만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 ② 갑: 사람마다 본성은 다르지만 교화를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
- ③ 을: 사람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을: 사람은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사단을 형성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사람은 선천적으로 도덕적 인식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19.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은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욱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도덕 판단의 기준은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보기〉
- ㄱ. A: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ㄴ. B: 인간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지닌다.
 - ㄷ. B: 자기 행복을 산출하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ㄹ. C: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우리는 정념에서 벗어나 혼들리지 않는 정신의 평온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질병과 같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는 이성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을: 우리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이 쾌락적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욕구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을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 삶을 만들어 준다.

- ① 갑: 자연의 섭리에 일치하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갑: 자연 안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시켜야 한다.
- ③ 을: 권력이나 명예는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이다.
- ④ 을: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